

제26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 2018. 12. 11.(화)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완도군
WANDO COUNTY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희망찬 미래 완도’ 설계를 위한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제게 완도 군정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며 ‘모두가 잘 사는 완도’를 건설하는데 저와 공직자들은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이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늘 협력하여 주시고 때로는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멀리 내다보며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은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청정한 환경과 해풍, 갯벌,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산업은 의료·관광·바이오산업과 연계되어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우리 완도의 희망이자, 미래 산업입니다.

이에 해양치유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해양치유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일환인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신지명사십리에서 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완도 전복이 우리나라와 아시아 최초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인증을 받았으며, ASC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복 산업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해외 수출에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3개국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2천 1백만 불의 수출 계약과 14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자연그대로 미(米)가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통과하여 말레이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농산물 보관 시설사업으로 톤백 창고를 시설하여 공공비축 미곡의 톤백 수매율 상승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 우위의 완도 황칠은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에 등록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근해조업 선단의 완도항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올해만 1,06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오며 고용 창출도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 개최된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세계 속 한상(韓商)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 올해까지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재외 한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입니다.

그에 걸맞게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 전문 인력을 채용해 우리의 자산인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전남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풀장과 에어 바운스, 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피서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해양기후치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힐링의 장으로 자리를 잡으며, 친환경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 획득 전망을 한층 더 밝게 해주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새롭게 단장하여 4개월 동안 운영한 ‘토요 싱싱 콘서트’는 약 9천 여 명이 다녀가며 군민과 관광객에게 매주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렇듯 청정 환경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있는 우리 군은 한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완도군이 기초자치 사·군 2위에 이름을 올렸고, 바다와 해변 종합 만족도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완도의 랜드 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이 ‘제3회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에서 공원의 활용성과 심미성을 높게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짚라인은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청산 대모도를 배경으로 촬영해 방영 중인 ‘톱스타 유백이’는 첫 방송과 동시에 촬영지가 각광받고 있으며, 방송 및 다양한 매체에 완도의 맛과 멋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완도의 수산물과 완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복지재단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빙그레 시네마’는 이용객이 8만여 명을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열려 군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산면 진달래도서관과 노화 읍도의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총 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우고, 주민들에게는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 평생학습 활성화에 힘을 쏟은 결과,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대상 특별상과 전남 평생교육 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식수난과 생활의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출산 장려 정책과 귀농·귀어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 경제 발전의 근간인 전북 산업이 과잉 생산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전북 가격이 하락하여 어민들의 시름이 깊었으나, 전 공직자들과 어민, 유통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갔습니다.

또한 올해 금일 지역의 대조기 다시마 피해와 태풍 솔릭과 콩레이, 고수온으로 전북 가두리와 미역, 김 양식 시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동군수실을 통한 전북 입식량 줄이기 운동과 조기 출하 유도,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앞 다투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을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해양치유산업이 미래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900여 공직자는 치밀하게 설계하여 실행력을 높일 것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군정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해양치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세계 속의
완도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을 구체화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인구 감소에
따라 78개 지자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며, 이에 대한 생존 전략으로 해양
치유산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해양치유단지에 공공시설 분야로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
전문병원,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분야에서는
해양치유 리조트와 해양바이오 연구소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체육인 교육센터를 유치하고, 해
양치유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산업특구,
해조류 건강 바이오 특구를 통합하여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특구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 개최 예정인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수출 중심의 산업형 박람회로 이끌어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해조류 시장을 선점하여 다시 한 번 완도를 세계에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완료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중앙부처의 국제 행사 승인과 함께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와 해양수산부 수출 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기존 시장 판로 확대 및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시장 개척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각지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과 북녘에 수산양식 기술 전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은 인도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 향후 남북 경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완도산 수산물의 유통 확대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고, 기후 변화 대비 적응 체계를 건실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생산량 증가와 기후 변화, 경기 침체 및 소비 한계에 부딪혀 전복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은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분야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전복산업이 안정을 찾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인증을 전복에 이어 광어, 해조류까지 확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조류 육종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확대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백신 공급 확대로 차별화된 명품 광어의 상품성을 향상 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등 어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어회 유통을 위한 가공 공장 건립과 수산물 소비지 직거래 유통 센터를 운영하여 대도시에서도 완도산 수산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농수축산업의 동반 성장에 주력한 결과, 완도자연그대로미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듯 완도자연그대로 농업과 브랜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소득 작물인 유자와 비파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6차 산업화로 더 많은 농가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황칠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되었고, 동백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황칠의 경우 특화림을 조성하여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산업화 모델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난지시험지 부지에 노후화된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과학에 기초한 영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병해충 진단실, 종합 검정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촘촘하고 든든한 그물망 복지로 군민행복시대를 앞당기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포용’을 기본으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람우선 포용복지’를 군정 방침으로 두고 군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내 공공의료기관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진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고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가정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희망더하기 결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이며, 우리 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서 지역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 동상 및 장보고어린이 놀이공원을 테마놀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에게 놀이, 교육, 체험의 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17개 도서의 보건진료소에 영상 시스템을 통한 보건의료기관 간 원격 진료 등을 추진하여 외딴섬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종합 검진실 및 주차장을 확장하고 생일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등 공공 보건기관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전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군민 안전 보험을 통해 완도군민 모두가 강력 범죄 피해 보상까지 보장이 될 것입니다.

CCTV 교체 사업 및 도서 지역으로 확충하는 등 통합관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처로 군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재난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설한 완도 어업정보통신국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조업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완도소방서 신설을 추진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 도시로 품격을 높이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휴양 관광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완도는 해양, 섬, 갯벌, 숲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완도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의 장보고한상(韓商) 기획 전시를 여는 등 장보고 대사의 선양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대학교 강연과 2014년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언급한 이순신과 진린 장군의 선양사업을 전개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가 청산도에서 완도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슬로시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수산물 축제,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꼭 획득하고 해양치유 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선생의 동국진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광사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완도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도해 일출공원을 특색 있고 차별화된 휴양 공간으로 확대 조성할 것이며, 완도타워와 신지 상산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와 수륙양용버스, 해양유람선 등을 도입하여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섬의 특성을 살린 섬 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및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완도의 깨끗한 자연 환경은 후대에 물려줘야하기에 보전은 필수입니다.

내년에는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단을 더 확대 운영하고,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갯녹음 예방과 바다 숲 조성 사업, 해중림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굴 패각 친환경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 및 금일~약산 간 연륙교 사업은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등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가뭄으로 도서 지역이 식수난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보길도 지하수 댐 건설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대책으로 제2수원지 축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시가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공모 추진하여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것입니다.

완도읍 16개 마을, 7천 여 세대를 대상으로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연료비 절감과 안전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의 골프테마파크를 건립,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역점 시책들을 뒷받침할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4천 115억 9천 4백만 원, 특별 회계 393억 6천 2백만 원으로 총 4천 509억 5천 6백만 원이며, 올해 당초 예산 3천 704억 1천 4백만 원 보다 약 21.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 회계는 14.5%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현 정부의 강력한 재정 분권 정책 추진과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존 자원 수립은 다소 개선될 것 같으나,

특별한 세입 증가 요인이 없는 지방세 및 세입 수입 등 자체 재원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민선 7기 군정 역점 시책은 해양치유 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가 세입 증가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 예산은 군민의 관점에서 시급한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심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완도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민선 7기는 우리 완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4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전 공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 산업과 기후 변화 대책, 농·수·축산업의 동반 성장, 해외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완도 발전을 위해 급변하는 시대에 앞장서 대응하고, 완도 발전을 위한 일들은 엄밀하게 살피면서 긴 안목으로 완도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군민의 뜻을 모아 더 나은 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11.

완 도 군 수 신 우 철

